

# 대통령실 “2천명 증원 필수”... 의대교수 “의료비만 늘어나”

### 의료공백 상황 8개월째... 정부-서울대 교수들 증원 ‘갑론을박’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어날 것” vs “의사 늘려도 지역 안 가”

의료공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정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천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서울대 의대 교수 측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늘릴 뿐 정작 필요한 지역 의사 증원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견해차가 커 의정 대화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첨예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댔다는 점에서 양측은 의의를 찾았다.

장상문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먼저 발제를 맡아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는데,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천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문제를 두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실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응급실 문제가 곧 의료개혁의 계기”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배후진료, 필수 의료 전문의가 수도권도 부족하고 지역으로 가면 더 부족한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물리적 (의사) 숫자가 부족한 단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해온 필수 의료 살리기에 국가 재정을 내년부터 투입한다”며 “현재 적립금이 28조원가량 남아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할 텐데,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내는 건강보험료도 늘어서 전체

재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고”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2030년 의료비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6%로, 현재 건강보험료의 1.6배를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GDP 대비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 자료를 인용해 “25~64세 인구의 연간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에 60만원, 2040년에 136만원, 2050년에 201만원으로 예상된다”며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 소멸이 한국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서울에서는 늘었지만, 충남이나 경북 등 지역에서는 늘지 않았다”며 “(의사 증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측은 증원보다는 동네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먼저 해소하면 굳이 의사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은진 비대위원은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이유는 한 번에 여러 진료과를 갈 수 있어서”라며 “(동네 병의원) 1차 진료 영역에서도 다학제 진료를 할 수 있게 수가를 만들면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측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선 의정 양측이 이해의 폭을 넓힌 뒤에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견해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의정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연합뉴스



군수 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10·16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윤-이시바 정상회담 “한일 셔틀외교 계승”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대에서 “전일 기사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 회담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작년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날 전략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사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셔틀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 관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이날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한-아세안 협력의 확대와 발전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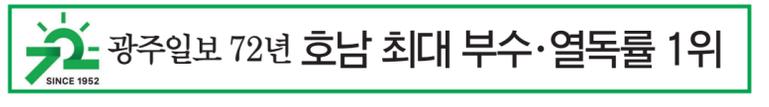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올해로 3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에서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2024년)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한다.



## NBS, 尹 국정 지지율 24%...취임 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 1%포인트(p) 떨어졌고, NBS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3%p 내린 66%였다. 대구·경북(긍정 평가 46%, 부정 평가 43%)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더불어민주당 28%,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0%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p 떨어졌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잘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22%, ‘잘못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60%였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구형’이란 응답이 43%, ‘양형 기준에 따른 적합한 구형’이란 응답이 41%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b>총계</b>		<b>84</b>	<b>21</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형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0 36